

협회 부산시회 산학협력대학

동의과학대학 전기과 학과장 인터뷰 ...

취재 | 제도연구실 손 영 선

Q 귀 대학과 저희 협회는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속에 전기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히 협약내용과 그 동안의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동의과학대학과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력기술기초인력 양성과 기술교육의 연계성 강화 등의 원활한 추진과 학계와 산업계의 공동 상생발전을 위하여 2011년 4월 29일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및 기술인력 교류, 전력기술기초인력 양성 운영에 관한 상호 지원, 취업편의, 현장실습 기회 제공, 신기술 정보 및 각종 문화 행사 교류 등입니다.

우리대학은 협약을 총장님께서 승인을 받아 학교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상호 간에 시너지 강화에 역점을 두고 협약사항 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Q 귀 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 HFD)'에서 지역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 대학만의 강점과 앞으로 계획 중인 플랜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대학의 강점은 우선 직원역량개발에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5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매년 직원역량 향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적 관점에서는 vision 실현을 위한 핵심 역량(가치관, 태도 등)에 대해서 Top down 식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개인적 관점(Bottom up)에서는 정기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직원 요구분석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직원이 원하는 다양한 주제의 사이버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전문교육 지침을 두어 어학/컴퓨터 능력개발을 위한 수강비를 지원하여 직원들의 자기개발을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대학은 대학자체적으로 OJT 및 자기개발교육을 권장하여 자율적인 경력 개발 및 학습화를 돕는 한편, 직원 평정에도 교육훈련 평가를 반영하여 직원들의 교육 참여와 교육을 성실히 받고자 하는 의지를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대학은 대학 비전 및 전략을 함께 공유하며 풀어나가기 위한 혁신학습동아리를 2012년에 만들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우리대학의 현안사업의 문제 및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Q 귀 대학만의 교육커리큘럼의 강점이 무엇인지와 학생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2010년 공학기술교육 인증제의 시행으로 학생들이 취득해야할 전공과목 학점이 45학점에서 54학점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공학도로서의 기본과목인 MSC 10학점, 국제화 시대를 대비한 전문교양 6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대학은 평생지도교수제를 운영하여 교수가 학생을 man-to-man으로 학업, 대학생활, 취업뿐만 아니라 졸업 후 사회적

이 화 석

동의과학대학 전기과 학과장

활까지 밀착 관리하는 “라이프가이드제”를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대학은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대학에서 배우고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년간 졸업생의 취업동향을 분석하여 우리대학 학생이 많이 취업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그 곳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커리큘럼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기설비설계 및 자동화 분야로 학생들이 많이 취업을 하고 있어 이 분야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맞춤형 교육시스템으로 사회가 원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함으로써 사회에는 쓸만한 인재를 제공하고 학생에게는 이를 통해 높은 취업률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사회와 학생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win-win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대학은 이러한 전문교육시스템과 더불어 학생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인이 되도록 인성교육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전문기술과 인성을 두루 갖춘 전문가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Q 귀 대학 전기과는 부산 전문대 중 최초로 “공학기술교육” 인증을 획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학기술교육이 무엇인지와 학생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공학기술교육인증이란 궁극적으로 공학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실력을 갖춘 공학기술 인력을 배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증은 시드니 협약 등과 같이 해외 우수 대학 등이 참여하는 협약에 준하여 진행되므로 저희 대학 졸업생의 경우, 졸업 후 해외에서도 동등한 학위과정을 이수하였음을 국제적으로 보증 받게 됩니다.

아울러 국내 기업 간에도 이러한 인증 체제에 대한 관심 증대 및 그 동안의 좋은 결과 등을 토대로 면접 시 가점을 주는 등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데에도 직간접적인 혜택이 있어 학생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공학기술교육인증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부담감은 증대시켰지만, 오히려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10년 재학생의 만족도 조사결과)

따라서 공학기술교육인증은 학생의 학업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제반 인프라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교육의 질 향상과 높은 기술수준을 갖춘 인력양성에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Q 학계에서 바라보는 전기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와 이러한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전기인들이 어떠한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국·내외적으로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대정전 이후 노후 전력망 교체를 포함한 스마트 그리드 개발에 매년 4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린에너지 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천명하고, 그린에너지 산업에 2012년 까지 1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34조원의 민간투자를 유발해, 2030년에는 73만 명의 일자리와 내수 154조원, 수출 433조원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지능형전력망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러한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스마트그리드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기계에서도 국내외 환경을 잘 직시하여 우리 전기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 전기계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는 말처럼 전기계 여러분께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구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전기계는 “융합기술”속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융복합화는 우리 전기계속에 다른 분야를 결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것으로 항상 중심에는 전기계가 있고 우리 전기인들이 선도해 나가야 하는 만큼 다른 분야도 폭넓게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